

경찰청장, 화물연대 파업현장 찾아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배후까지 예외 없이 사법조치” 집단운송거부 관련 7건 수사 중

윤희근 경찰청장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
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관련 불법행

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윤 청장은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를 맞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를 방문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기동대원을 격
려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윤 청장은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

정 대응하겠다”며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
자,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화
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수사 대상자는 8
명(7건)이다.
일례로 지난 26일 오전 7시부터 약 15분

간, 2차에 걸쳐 부산신항에서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량이 돌로 추정되는 물체에 의
해 파손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하
고 공모여부까지 포함해 수사한다는 방침
이다.

서선욱 기자



‘전국에 찾아온 추위, 서귀포는 유채꽃 활짝’

전국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2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 농장에 봄꽃인 노란 유채꽃이 활짝 피어나 이색 경치를 자아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8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린 후 수은주가 영하권 아래로 내려가는 큰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2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 농장에 봄꽃인 노란 유채꽃이 활짝 피어나 이색 경치를 자아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8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린 후 수은주가 영하권 아래로 내려가는 큰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1366’ 여성긴급전화, 스토킹·폭력피해 보호 강화 추진

특화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수립...종사자 의견 수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추방주
간을 맞아 오는 2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여성긴
급전화 1366 중앙센터를 방문한다고 27일 밝
혔다.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의 피해
로 긴급한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
를 24시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광역
시·도에서 18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21년 전국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상담
실적은 31만3868건이다.

이번 장관 방문은 지난 24일 국회 여성가족
위원회에서 통과된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
정안 및 이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 수행 방식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법률안에 반
영된 임시거소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스토킹 피해자 특화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 종사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
이다.

김 장관은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를 위해 사
각지대 없이 초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
관 연계를 통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
록 여성긴급전화1366에 정책적 지원과 노력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화물이어 ‘시민의 발’도 파업...이번주 참여

오는 30일 서울 지하철 이어 내달 2일 철도 노조 총파업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보장을 요구하며 나
흘째 파업 중인 가운데 지하철·철도 노조도 이
번주 파업에 돌입한다. 물류가 멈춰선 가운데
교통 대란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
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한국노총·민주노총)는 오는 3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2026년까지 인력 1539명을 감축하
려는 사측의 계획에 반발하며 이를 철회하고
안전인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측이 지난해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
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노사특별합의
를 체결하고, 올해 심야연장운행에 따른 안전
인력 300여명 채용에 합의하고도 인력감축안
을 제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신당역 사건과 정발산역 스크린
도어 수리 노동자 사망사고 등 ‘나홀로 근무’
중 사고가 잇따랐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재발
방지대책을 내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삼고 있
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안전 운행’과 ‘2인 1
조’ 근무의 필요성을 알리는 ‘준법투쟁’을 진행
중이다. 배차 간격을 무리하게 맞추지 않고 승
하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의 역사 정차 시간이 길어
지면서 일부 열차 운행이 최대 13분가량 늦어
진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오는 25일과 28일 예정된 사측과의
교섭에서 진전이 없으면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노사 간 입장 차가 커서 결렬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특히 출퇴근 시
간대 혼잡도가 커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불
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호선 운행률은 평시 대비 53.5%로 떨어지
게 된다. 노선별 예상 운행률은 2호선 72.9%, 3
호선 57.9%, 4호선 56.4%, 5~8호선 79.8% 수
준으로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

도노조도 인력 총원과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
며 다음달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지난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
서 코레일 직원이 기관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
을 포함해 올해에만 4명의 철도 노동자가 업
무 중 사망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인력 증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총파업에 나선
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노동자 사망과 탈선 등 일련의
사고와 관련해 “인원 부족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엉뚱한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노조
의 증원 요구에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어 파업
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코레일 정원 감축 및 유
지보수·관제 업무 이관을 검토하는 등 민영화
포석을 두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노조 역시 지난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열차 도착시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
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시간 외 휴
일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에 차
질을 주고 있다.

노동계는 연세 파업으로 ‘동투’(冬鬪·겨울
투쟁)의 기세를 그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이 구체화되면서 노동
계의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노동정책의 기초를 ‘규제 완화’와 ‘자
율성 강화’에 맞추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근
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
다. 또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 노조법 2·3조 개
정안에 대해서도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
다. 릴레이 파업의 중심에 있는 민주노총 공공
운수노조는 조합원 25만명을 둔 최대 산별조
직으로, 물류와 교통, 학교, 병원 등에서 총 15
개 단위가 파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업무개시명령
발령을 검토하는 등 ‘불법 엄정 대응’을 강조하
고 있어 노정 간 긴장감은 계속 높아질 전망이
다.

이슬비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